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코로나 위기상황...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 “기술 개발 강화” 허태웅 새 농진청장 취임

### 송 지사, 손씻기·거리두기 등 기본 동참 호소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수도권 방문자제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가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데 대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모두가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도민들의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송지사는 18일 오전 도내 시장·군수가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일부 교회와 광복절 집회 여파로 도내에서도 지난 연휴부터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잠시 이완됐던 마음을 다잡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3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던 초기의 방역 태세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8.15. 이후 도내 확진자 총 9명 (국내 7명, 해외 2명)

이어 “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의 후회 행정조치를 지난 17일 발표했다”면서 “참석자는 즉각 진단검사와 이동 경로 파악에 협조하고 시군 방역당국은 참석자 파악과 관리에 민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종교시설은 비교적

방역을 준수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종교시설이 감염 확산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면서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나 미사로 전환하거나 정기적인 활동을 제외한 여타 소모임은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지사는 “민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미 집합제한 조치 중인 10대 업종 외에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추가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종교시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업종은 헌팅포차·감성주점 영업형태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풀라텍, 실내집단운동(코인)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이다. 또한 “도민들은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군은 터미널과 장례식장,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과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모이는 관광지 대해서도 출입구 일원화, 전자출입명부 활성화,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등을 확실히 이행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8일 오전 도내 시장·군수가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잠시 이완됐던 마음을 다잡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3대수칙을 철저히 지키던 초기의 방역 태세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지사는 “도내 수해 복구 현장에 많은 분이 찾아오고 함께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사람이 밀집된 현장에서는 덥고 힘들더라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원봉사자와 민간지원 활동도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생필품과 식료품 지원 등 비대면 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 전체가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서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허태웅 선임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오전 9시 분청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9대 농촌진흥청장에 취임했다.

허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와 긴 잠마 등으로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곡의 자금을 달성한 녹색혁명, 세계질 신선농산물을 식탁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백색혁명,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스마트 농업혁신 등을 이끌면서 우리는 농업·농촌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겠다”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깊어진 잠마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강화하겠다”라며 “농업인과 환경을 중시하는 기술의 연구와 보급으로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도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농업·농촌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허 청장은 1965년 경남 함천 출신으로 서울 서라벌고교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환경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23회) 합격 후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기획관, 대변인,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16년 9월에는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농축산식품부서관을 지냈고 다음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을 맡기도 했다. 2018년 1월부터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총장직을 수행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고강도 방역으로 코로나 잡는다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공공 실내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 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최명규 전주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시설 또한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확산을 막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 공공 실내시설 임시폐쇄·민간시설 특별점검

이는 지난 광복절 연휴 동안 전주에서만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강화된 방역대책의 주요내용은 △공공 실내시설 운영 임시 폐쇄 조치 △개방 실외시설 고강도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고위험 민간시설 특별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먼저 시는 복지시설과 실내체육시

설,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 폐쇄키로 했다.

또한 축구장을 비롯한 실외 공공시설과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등은 개방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과 소독, 열 체크 등 고강도 방역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집

합시설 중 고위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시는 오락실과 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협조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는 방문자 열 체크 및 방문록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최명규 부시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돼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처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역사회 인접 자치단체,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의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에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시설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강하게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군민과 공감하는 부안군의의회**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신리받는 열린의회**

**의회 부안군의의회**